

여성 동향

04. 10. 11 - 04. 11. 10

[학교급식] 학부모,여성단체 예산 확보 촉구
동성동본 금혼 폐지 국회 제출..발의키로
서울대 86학번 여학생 필지 기자 2명 고소
'학교의 사회와운동' 전개 - 교육부
여성 정보산업인력 절반이 기술직

(가칭)여/성/사/회/연/대

종로구 종로6가 239-30 세경B/D 502호

☎ 7/6/5/6/8/0/7 FAX 7/4/4/2/8/9/3

□ [학교급식] 학부모, 여성단체 예산 확보 촉구

국회에 상정중인 95년 교육부 예산에서 국민학교 학교급식시설·설비 지원예산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단체와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95년 예산에 학교급식시설·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96년까지 전국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의 2백억원 지원 수준에 상당하는 예산 확보를 촉구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는 11월10일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한편, 교육부에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학부모 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7일부터 ‘학교급식 실태와 학교급식 후원회의 운영현황 및 학교급식 찬조금 징수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94년 4월1일 현재 학교급식이 실시되는 국민학교는 전국 5천9백개 가운데 38.2%인 2천2백52개 학교다. 수로 따져보면 전체 국민학생 4백0만9천2백59명 중 24%인 98만3천7백38명만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면 실시를 3년여 앞두고 아직 4분의1 정도의 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95년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98년 전면실시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현행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 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적인 의무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했는데도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학부모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1백6개 학교를 급식실시 학교로 새로 지정하면서 급식시설 설치비용 1백46억1천만원 가운데 75억9천만원만 시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70억2천만원은 각 학교 급식후원회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해 급식 경비의 절반가량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한겨레 10/17)

□ 동성동본 금혼 폐지 이번 국회 제출... 의원발의키로

여당과 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은 동성동본 금혼조항 개정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 강신영·정옥순·주양자 의원, 민주당 이우정 의원, 신민당 강부자·현경자 의원 등 6명의 여성의원들은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예산실의 법안 검토작업을 끝내고 발의 찬성 의원 서명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들 여성의원들이 초안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성혼 등의 금지’ 규정인 민법 제809조를 ‘근친혼 금지’ 조항으로 개정해 현재 부계는 동성동본간, 모계는 8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혼인금지 범위를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40명선 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우정 의원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는 시대적 추세” 라면서 “대법원 등 판사들도 폐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 꼭 관철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대영)와 한국어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는 지난해 11월 39명이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를 국회에 천원채 현재 국회 번 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한편 대법원이 동성동본 금혼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9월 전국의 5개 법원과 14개 지방법원의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는 89년 가족법 개정 당시 유림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당이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10/25)

□ 서울대 86학번 여학생 필자 기자 2명 고소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지난 28일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여성지 <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해 이 기사를 쓴 <필>의 신상근(31) 기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고소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필>의 발행사인 조선일보사와 신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겨레 10/30)

□ '학교의 사회악은동' 전개 - 교육부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유적지, 관공서 등 각종 사회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의 사회악은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월 7일 지금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해오던 '효경의 날'을 학교실정에 따라 매주 하루씩 정해 효행 등 인간성교육을 강력토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생청소년 선도분위기 조성방안'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시달렸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저명 인사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을 '명예교사'나 '학생상담 자원봉사 요원'으로 위촉해 적극 활용하고 시·군·구 지역에서는 퇴직교원 등을 중심으로 '마을교사제' 또는 '마을 훈장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담당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달에 한번 이상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시간도 '전일제'로 늘려 운영해 박물관, 유적지, 관공서, 언론사를 현장탐방케 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했다. (한겨레 11/7)

□ 여성 정보산업인력 절반이 기술직

정보산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 등 전문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인포노믹스>가 최근 여성정보인협회 회원과 정보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정보인 2백명을 대상으로 '여성전문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직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벤트와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직이 2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는 영업직과 연구소의 연구직이 각각 10%씩을, 전산교육직이 4%를 차지했다. (조선 10/30)

□ 변/화/하/는/일/터

◇ 한일은행 · 비디오 무료대출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은행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일은행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자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대여해주는 비디오테이프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산업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교육의 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는 가정을 위해 8개월간에 걸쳐 제작한 '좋은 부모 바른 아이'로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교육법을 담은 것이다.

행사가 끝나면 대여 테이프를 각 지점 주변의 유치원·국민학교·부녀회·노인회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한국 10/31)

□ 세/계/는/지/글

미·국

◇... 미국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투숙한 여성을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라스베이거스 힐튼호텔과 그 모기업에 5백만달러(40억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해군 대위 폴러 코플린(32)이 92년 이 호텔에서 벌어진 해군모임에서 술취한 남자 조종사 무리에 의해 하룻밤 동안 감금된 채 성추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코플린이 호루라기를 부는 등 도움을 청했으나 호텔쪽이 투숙객 보호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1백70만달러 지급 결정을 내린 뒤 다시 이런 추가지급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92년 당시 해군모임에서는 83명의 여성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이중 1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연방 및 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한겨레 11/1)

순... 어린 나이에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미국의 프레드 후치슨 암센터 연구원들은 45살 이하의 유방암 환자 8백45명과 같은 나이의 건강한 여성 9백61명을 비교하여 검사한 결과, 18살이 되기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낙태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가 사실로 확인되면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 1백명마다 1~3명꼴로 유방암에 걸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여성단체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조선 10/27)

일본

◇... 위안부문제소위 설치

일본 연립 여당의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팀'은 12일 오후 회의를 갖고 프로젝트 팀 안에 '중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를 설치해 내달까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이미 담화로 제창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민간의 기부 및 모금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전 일본 군대위안부 출신 여성을 위한 기금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지 △기금의 대상을 전 일본군 위안부 출신에 한할 것인지 등을 중점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말 총리 담화를 통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1천억엔 규모의 '평화 우호 교류 계획'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전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과 이들을 지원하는 일본 국내외 민간 단체가 이런 사업의 추진에 맹렬히 반대해 벽에 부딪치고 있다. (한겨레 10/20)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위기상황이 고조된 지난 4월부터 몇달간 일본 사회에서 극성을 부렸던 조총련계 조선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행패를 다룬 소책자 <찢겨진 치마저고리>가 최근 일본의 시민활동가들에 의해 간행됐다. 64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조선학교 여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조사보고, 사건발생 분포도 등의 자료말고도 각계 인사 10명이 여러 시각에서 사건의 배경을 분석한 글들이 실려 있다.

기고문 중 작가 오치아이 게이코가 재일동포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이전에 치마저고리를 입었던 그씨에게 보내는 편지'와 성악가 곤도 히사코가 '조선인 학생 인권침해조사위'에 항의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보내는 답신인 '무궁화꽃을 보았습니까'를 요약 소개한다.

△ 오치아이 게이코=재일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관동대지진 때와 같은 차별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들게 한다. 나는 이 사건이 명백히 민족차별, 여성차별, 어린이차별이 어우러져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말하지 않았으나, 젊은 여성이나 어린이를 주로 폭력의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의식의 내면에는 매체에 의해 재생산되는 여성혐오적 감정이 감춰진 것은 아닐까.

한 민족을 '가상의 적'으로 해 그 사회의 다수파인 시민의 긴장해소를 꾀하는 사회는 한쪽의 성에 대한 다른 성의 지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나의 편지는 여기서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부터 쓰는 것은 적어도 가해자인 일본인이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주저된다. 치마저고리를 나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복에는 항상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 흑백이나 검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조선학교 여학생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으썬, 당신은 학생시절 좀더 고운 색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싶었고, 나아가 여성만이 치마저고리로 민족을 상징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인의 민족차별문제를 민족주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고정화된 주체성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주체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 말이다. 민족차별이 하나의 민족주의라고 하면, 남성우월주의도 남자라는 한쪽의 성을 우위에 둔 대여성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 곤도 히사코=2차대전이 끝난 뒤 중국대륙에서 돌아왔다는 일본인이 인권침해 조사위에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을 요약하면 "치마저고리 사건에 대해 유엔 인권위에 조사내용을 낸다고 하지만, 모든 악은 조선·한국인이 계속 일본에 주저앉아 귀국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며 "전후 일본인 모두가 무일푼으로 철수한 것처럼 재일한국·조선인도 모두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다. 올해 일흔살인 어머니는 서울에서 무일푼으로 돌아온 귀환자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일본에 주저앉은 조선·한국인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무궁화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운 꽃이 피는 나무인데도 어찌해서 조선에는 한 그루도 없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 조선의 나라 꽃이었는데도. 이름이나 말뿐 아니라 나라의 꽃인 무궁화까지 전부 빼앗아버렸으니 지독한 일을 했지."

귀환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일본에 온 조선인 중 종전후 3년7개월간 약 1백40만명만이 조국에 돌아갔으나, 47년부터 남한의 정치상황이 악화돼 빨치산투쟁이 확대되면서 돌아가려 해도 생활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 내부부의 재일동포1세는 나이를 먹어도 뒷자리를 사지 않는다. 조국이 통일되면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본이 한민족의 이름과 말을 빼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며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현실에 솔직하게 눈을 돌려주기 바란다. (한겨레 10/22)

□ 단/제/소/식

◇ '한국문화' 여성 '예배'를 주제로 여성교회 5주년 기념행사가 20일 오후 3시 서울 경동교회에서 예배, 드라마(한국 여성예수)등 행사가 마련되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위기센터 지킴이를 지난 22일까지 모집했다. 지킴이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를 경찰이나 병원·상담원에게 연계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선·동아·한겨레 등 5개 일간지 여성 관련기사 보도·편집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8일 '신문 속에 여성 소외'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문제의 단순화·고립화' '성역 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자극적·선정주의적 경향' '일회성·흥미성 위주' 등이 여성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한국외국어대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김진홍)는 10월 29일 '여성과 각인보도' 주제 워크숍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 김정기 학장은 "어떤 범주나 계층에 속한 구성단위들 간의 차별을 무시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잘못된 언어관행인 각인보도는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환경치를 맡은 여성 장관이 눈물 장관으로, 보사부를 맡은 여성 장관이 별 근거도 없이 아마추어 라는 딱시를 달게 된 것 등은 여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통념에 입각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 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언어 자체가 갖는 성차별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여공' '여류' 등으로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에 관한 사회적 멸시감을 나타내는 것' 등도 여성에 대한 각인보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각인보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여성 보도에 대한 시민감시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즉 미국의 전국여성기구(NOW)가 어떤 식으로 여성에 관한 보도를 해야 할지를 제시하는 '여성보도 지침'을 마련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여성 언론인을 많이 뽑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것 등을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 구로공단지역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꾸려진 '옷을 만드는 사람들'(852-1772)과 청계파복노동조합·북부새날동지회·인천청산골 봉제인의 집 노동자들은 공장근무가 끝난 뒤 이렇게 톨툴이 만들어진 70여점의 옷들을 지난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홍익대 강당에서 '94 봉제인 대동한마당'에서 멋진 패션쇼와 함께 소개했다.

◇ 기독교민회는 11월 1일 오후 6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변혁과 영성'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오늘 여성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발표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4일 오후 3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여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김재원 교수의 '여대생 취업 활성화와 인턴사원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 또하나의 문화는 11월 5일 오후 4시 이화여대 체육관에서 10돌 기념행사를 갖었다.

민족·민중운동 열기가 고양됐던 지난 84년 권위적·획일적 문화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여성문제를 풀어보자는 '색다른' 접근방식으로 여성문화운동을 시작했던 '또 하나의 문화'는 '남성학 소모임' '영상 소모임' '주부 공부방 소모임' '직장인 소모임' '여성 무예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소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명망가 위주로 이뤄져온 사회운동 풍토에 탄탄한 소모임 중심의 문화운동이라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

□ 이/달/의/의/성

◇ 삼애봉사상 수상 한의사 마갑영씨

지난 29일 한국소아마비협회(이사장 송영옥)와 정립회관(관장 이원수)이 주는 제13회 삼애봉사상을 받은 '여성 장애인 한의사' 마갑영(34)씨에게선 수상수감에서 무뎌 얼핏 '봉사'라는 상 내용에 걸맞은 삶의 이력을 찾기 어렵다.

남 앞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사회운동이나 봉사활동을 벌여온 적도 없는 그가 이 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최쪽은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게 겪어야 할 과정인 교육·취업·결혼·육아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한 '극복의 얼굴'로 장애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일반인에게는 장애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상을 준 이유를 설명했다.

세살 때 소아마비로 양쪽 목발을 의지해야 하는 '증증 지체장애인'인 그에게겐 교육·취업·결혼·출산 등 그 모든 성취들이 남처럼 쉽지 않았다.

전남 강진이 고향인 그는 목포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채 줄곧 수석을 지켰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에 합격한 뒤 발표에 앞서 학교폭이 실습이 힘든 한의대 대신에 원하는 학과 어디든 합격시켜주겠다고 제의했지만 "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며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예과 2학년 때 장애 탓으로 승강기가 없는 13층 건물 등 9개동 건물을 오가던 끝에 몸무게가 32kg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심각한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학교 후배였던 남편 조영래(29·배이징대 유학)씨의와의 소설 같은 연애담을 이야기하며 "나를 사랑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심리학 석사과정을 밟은 뒤 자신의 한의원에서 장애인 한자를 돌보는 일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전문상담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국 10/29)

◇ 여성기업인상 첫 수상 김영숙씨

11월 9일 한국여성중소기업인협회(회장 이영희)가 제정한 '여성기업인상' 첫 수상자가 된 (주)홍일금속 대표 김영숙(62)씨는 지난 73년 남편 최원국씨가 철선 제조업에 실패해 한창 새 사업을 찾고 있을 때 남편이 사업실패로 낙담할까봐 따라다니며 공장 청소도 하고 노동자들 밥도 지어주고 경리일을 보다가 경영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다가 81년 남편이 작고한 뒤 혼자 사업을 꾸려 나가게 되었다.

현재 (주)홍일금속은 전자제품 반도체에 연결시키는 코넬트 핀용 황동선과 금형용 쇠를 자르는 황동선 'EDM' 와이어 제조업체로 종업원은 24명에 불과하지만 1년 매출액 35억원을 올릴 정도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종업원들 사이에 '여장부'로 불리는 김씨는 강철 같으면서도 종업원들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 처리해주는 넉넉함으로 인기도 대단하다. 평양 출신으로 평양사범 전문학교를 나온 김씨는 1·4후퇴 때 내려왔다.

* 한국여성중소기업인협회는 제조업계를 운영하는 여성 기업인 중 특히 '3D'산업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건설하게 운영하는 여성 기업인을 해마다 1명씩 뽑아 상을 줄 계획이다.

◇ 국궁 홍일점 서호행씨

지난 28일 대전시 월평공원 궁도장에서 105명의 남성들속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출전한 서호행(51·대전)씨는 75년 전에 열린 첫 대회부터 지금까지 체전 궁도경기장에서 여성선수를 본적이 있는지 체전 관계자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이의 관심을 모았다.

국궁에서는 현재 5~9단까지 1백여명을 최고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명궁'이라 존칭하는데, 서씨는 명궁이 된 지 6년이 넘었고, 인천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전입한 지난해 6단으로 성급 올라섰다. 이번 체전에도 70여명의 남성들을 실력으로 뿌리치고 7명으로 짜인 대전시 대표로 가볍게 나섰다.

여성궁도계에서 서씨는 이미 특보적 무사(武士)다. 27년 전인 20대 청춘에 "그냥 우연찮게 손이 닿아서" 활을 잡아 지금까지 전국대회 여성부를 40여차례나 싹쓸이해, 전국여무사회장이란 감투가 잘 어울리는 그는 현재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

운동으로 단련된 낙천적 심성 때문에 서씨는 50줄에 접어들었는데도, 10년 이상 내리잡을 만큼 당당한 표정을 갖고 있는 그는 "여성이라서 불편한게 많은 사회이지요.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은 없어요." 라고 말한다. (조선 10/28)

□ 더불어/사는/남성

◇ 여성칼럼 출간 준비 김종찬씨

"남녀관계를 정치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과 평등해지려면 야당의 치열함을 가져야 합니다."

11월께 남녀공존 시대를 지향하는 여성주의 칼럼을 모은 <절반의 책>(시사영어사)을 펴낼 김종찬(47·서울방송 '서울전망대' 진행자)씨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대는 여성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틈틈이 써둔 글을 묶은 이 책은 남아선호 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딸과 아들' '일부 다쳐시대에서 일처 다부시대로'나 미혼모 문제를 다룬 '이성미 이야기' 등 여성 편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남성 편에서는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88년 <집중토론 여성>에 이어 90년 <생방송 여성> 등 여성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김씨가 이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씨는 자신은 현재 독신이지만 '같이 사는' 부부생활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전업주부의 가정과 똑같이 창틀에 먼지 한 점 없이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그는 또 "외벌이 부부"의 경우도 주부의 일을 계량화해 남편의 직장근무시간과 비교해보고 주부의 일이 많으면 부부가 분담해 가사를 해결하는 식으로 자꾸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 76~84년 여성학 관련 서적 출간이 거의 없다시피하던 시절 출판사 평민사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사회의식>(이호재), <여성의 신비>(베티 프리단) 등 여성학 관련 책을 4권이나 내는 등 '선구적' 출판활동을 펴온 그는 <절반의 책>의 반응을 보아가며 시리즈로 책을 펴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겨레 10/24)

◇ 남성학 강사 정채기씨

“남성학은 올바른 남성상의 정립과 여성의 회복, 남성 폭력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연구방향으로 삼는 남성교육의 하나로 여성들과 조화를 이루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려는 학문입니다.”

각 대학 여학생회나 기업체, 주부모임 등에서 특강을 통해 아직은 낯설기만한 남성학을 강의하는 정채기(33·교육학 박사·건국대 강사)씨는 남성학이 결코 남성의 이익이나 권리만을 찾겠다는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씨는 장손으로 온가족의 기대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런 관심과 기대가 짐으로 느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는 “왜 꼭 내가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하나”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던 그는 결국 이 문제가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남성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 남성학 강좌가 설치된 일본의 교토대와 오카야마대 등을 찾아다니며 남성학 연구실태를 알아보고 자료를 모으기도 한 정씨는 남성학 관련 자료라면 빠짐없이 챙겨 읽는 등 전공인 교육학 못지않게 남성학 공부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올해말 출간을 목표로 <남성다움의 행방> 등 남성학 교재 번역과 남성학 개론서 집필작업으로 한창 바쁘다. (한겨레 10/17)

□ 생/활/정/보

여성들의 취업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어디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취업철을 맞아 혼자 방구석에서 끙끙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각종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소개한다.

◇ 컴퓨터 통신 이용 방법 = 현재 데이콤·하이텔·나우콤 등 모든 컴퓨터 통신들이 취업정보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천리안은 매뉴판에서 8.교육/문화/취업란을, 하이텔은 5.교육/취업란을, 나우콤은 24.교육/취업란을 선택하면 기업체별 취업정보, 공무원·공사·국영업체·공단 시험정보와 공채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천리안에서는 ‘여성취업 대책’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 ‘남녀고용 평등 관련법규’ ‘여성취업 성공사례’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하이텔에는 삼성 인력관리위원회의 취업정보란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이력서 쓰는 방법·면접 요령 등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 취업정보전문센터 이용 방법 = 취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으로는 리크루트 취업정보센터(753-4111)·매일경제신문사 매경 스킷(276-0201)·한국경영자총연합회 취업정보센터(706-0616)·취업정보은행(053-255-0711) 등이 있다.

이곳을 직접 찾아가면 각 기업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마다 뽑는 인원·출제요령 등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상담실 무료직업안내소(356-0070) * 여성지원금고(701-3966~7) 등은 특별히 여성과 관련한 취업정보만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는 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679-0813)와 전문대 이상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서울 521-9192~4, 부산 051-466-9153, 대구 053-944-1932, 인천 032-884-9893~4, 광주 062-226-8364, 대전 042-254-0575) 등이 있다.

또한 행정전산망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 * 군청이나 각 지방노동사무소 * 노동청 직업안정과 늘 어디에라도 구직신청서를 접수시키면 6개월 동안 3회 무료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711-1953)에서도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취업정보 자동응답전화 이용방법 = 현재 개설돼 있는 취업정보 자동화는 리크루트사가 제공하는 '오늘의 채용속보' 등 20개에 이른다.

각 기업체의 구직내용을 전화로 알아볼 수 있으며 적성검사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700-9192 * 700-9100 * 700-9101 * 700-9113 * 700-9114 * 700-9119
700-9123 * 700-9150 * 700-9191 * 700-9200 * 700-9222 * 700-9258
700-9288 * 700-9292 등이며 요금은 3분에 2백40원이다.

(한겨레 10/31)

□ 권/강/상/식

◇ 중년여성 폐경 후유증 시달린다?

중년 여성들이 폐경이 동반하는 골다공증, 심상혈관질환, 우울증 등의 증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들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서울대 산부인과학교실 김정구 교수와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권동진 * 김수평 교수팀이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폐경학회(회장 이진용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에서 각각 발표할 예정인 '일반 폐경기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의 폐경기와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정상 한국여성의 폐경 전 * 후 요추 골밀도 변화'에 대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들 논문은 폐경을 맞은 여성 3백7명과 산부인과 의사 4백1명의 설문응답형식으로 조사돼 작성됐다.

지난 5월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50대 폐경기 여성(전체 조사대상 90%)의 14.7%가 폐경후 심장병을, 17.6%가 뇌졸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22.1%는 폐경 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특히 손목과 다리의 골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폐경후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증상의 발생빈도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벌개지는 안면 홍조 등 혈관운동장애로 인한 증상은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48.9%)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 때 통증을 느끼거나 배뇨곤란 등 비뇨생식기 위축에 의한 증상이 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폐경 뒤 이런 증상을 겪고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이들 중 불과 10.7%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폐경이 자연적인 현상인 만큼 그에 뒤따르는 증상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폐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폐경기의 여러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호르몬치료에 대한 정보는 친구에게 얻는 경우(43.7%)가 가장 많아 의료진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 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 중 20.8%에 그쳤다.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폐경기 여성이라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1.6%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58.1%가 호르몬요법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5~49살의 여성 중 폐경전인 71명의 골밀도 평균값은 1.149g/cm²로 폐경후 여성 42명의 1.038g/cm²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는 50~54살 연령대의 폐경전 여성 37명과 폐경후 여성 1백30명에서도 각각 1.108g/cm², 1.008g/cm²로 폐경이 골밀도 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팀이 9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대학 폐경기클리닉을 찾은 폐경전·후 여성 4백48명을 대상으로 요추(허리) 골밀도의 값을 계산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들에게선 전체 폐경기간중 해마다 0.79%의 골밀도가 낮아진 것이 관찰됐는데 특히 55~59살대가 50~54살대에 비해 해마다 1.9%의 골밀도 감소율을 나타내 나이가 들에 따라 뼈의 밀도는 두드러지게 느슨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권동진 교수는 “여성의 골밀도는 35살을 전후로 절정에 이르다가 폐경전까지 완만히 감소하는데 일단 폐경이 시작되면 그 감소율이 매우 급격해진다”며 “폐경후 10년간 16.7%의 요추 골밀도 감소가 확인돼 골밀도 감소에 의한 골다공증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1/9)

□ 공연/전시/영화

최근 들어 여성문제를 다루는 공연물들이 프로 결연·사랑 이야기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들의 처절한 고민을 진지하게 다루는 새로운 양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시도는 여성과 관련한 주제라면 사랑·결연·부부관계·자녀문제 등을 떠올리던 종전의 일반적 통념을 깨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직장 여성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현상은 종돈 싼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중 속에 아르새기면서 일하는 여성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기 위한 고민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 딸의 침묵 / 톰 토퍼 원작, 송 영일 연출.

12월4일까지 화~일요일 늦은 4/30, 7/30 동숭동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마련된 딸의 침묵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자의 자아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창무극 여성국극 <바람이 머무는 곳>이 18·19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상연되었다.

고려여성극단단이 서울 정도 600년 기념으로 마련한 무대로 태조 이성계의 위촉도 희군부터 한성을 새 도읍으로 삼기까지를 그렸다.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성극단 연기자 가운데 최고령인 조금영(69)씨가 이성계를 맡고, 서울극의 이수자 한진자씨가 극중 경복궁 축성극 장면에서 원형 그대로의 서울극을 20여분 선보였다.

김영근 원작, 정현 연출. 국악실내악단 솔기둥의 대표 이준호씨와 한국방송공사의 음악프로듀서 채치성씨가 작곡으로 참여했다.

○... 지난 9일부터 서울 등송등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막을 올린 극단 '현장'의 연극 <년 프로다>는 20대 후반 여성들이 취업과정에서 받는 차별과 빚나간 프로 의식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프로의 남녀도 차별받는다?'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연극은 요즘 젊은 여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프로가 되면 남녀가 차별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장을 낸다.

특히 이 연극은 덕성여대 86학번 졸업생 6명이 지난해 9월 모여 만든 '글패, 어문우 백김'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모임이 직접 공동 대본작업을 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극단 현장 연극배우인 어연선, 광고회사 '임팩트' 직원 문상숙, 글짓기학원 강사 우순영, 학원 영어 강사 백미선, 여성문화예술기획 기획위원 김은영, 극단 현장 기획 담당 김영숙씨 등 6명이 졸업 뒤 수십장의 이력서를 제출해가며 겪었던 어려움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삭여야 했던 갈등과 분노 등을 그대로 생생하게 쏟아놓았기 때문이다.

○...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획전이 열린다.

김건희(49), 노원희(46), 이경희(45), 이진숙(45), 이나경(40)씨 등 종전 여성작가 5명은 지난 4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포커스(516-3536)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를 열고 있다.

여성작가들의 전시인 만큼 최근의 페미니즘을 다루는 전시들과 맥을 같이하는 듯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아직 치유" 해결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아픈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나경씨의 종이작업 작품을 빼고는 모두 평면회화이며 전시제목 '빛도 ...'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시인 차정미씨의 시 구절에서 따왔다. 서정적인 자연의 모습을 빌려든 쇠사슬·해골 등 좀더 직설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든 모두 주제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출판작들은 평면회화라는 형식과 함께 매체나 설치 위주의 다른 기획전과 달리 시류를 타지 않고 고전적인 주제중심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 새/로/나/온/책

◇ 커리어 우먼의 리더십-당신의 경쟁력, 자신 있습니까? / 여성신문사 출판.

'편견을 변화시키는 여성 리더' '남성들과의 근무' '여성 조직과의 협력' '여성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등을 담은 책이다.

◇ 리더-리드하는 여성, 리드당하는 여성 / 도서출판 글사랑.

'여성 리더의 역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의 4가지 유형' 등을 실은 책으로 관리자라 꿈꾸는 직장여성들을 겨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숨결, 눈길, 사랑 / 에드워드 맨티켓 지음, 홍현숙 옮김.(동지/6천원)

강간에 의해 태어난 딸이 어머니의 자살을 계기로 어머니를 이해하는 동시에 오랜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성적 순결과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한 소설.

◇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85년)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86년) <여성해방의 문학>(87년) <지배문화, 남성문화>(88년)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89년) <주부, 그 막힘과 트임>(90년)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91년) <새로 쓰는 성 이야기>(92년)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93년) 등으로 생활 속의 남녀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참신한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해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또하나의 문학'에서 동인지 10호를 펴냈다.

"앞으로 사회운동의 방향은 내가 있는 사회운동, 전체 속에서 자기를 보되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 사회운동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어야 한다." <또하나의 문학> 제10호에서 밝힌 동인들의 이런 주장은 80년대 사회운동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경험을 한 뒤 현재 생활 속에서 아무런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 김경수의 지음(고려원/5천5백원)

여성언어의 문제에서부터 동시대 여성 시인들의 작품세계, 그리고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성문제 등 페미니즘 비평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을 다룬 국내 필자들의 글 9편을 모았다.

◇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 이승희 지음 (녹두/8천8백원)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적 흐름,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문제 등을 다룸.